歌曲書冊
消憂雜說 全

○ᄯᆞᆯ도 이ᄂᆞᆫ 금도 잇ᄂᆞᆫ 겸ᄒᆞ여 ᄉᆞᆯ도 잇실ᄶᅦᄂᆞᆫ 번지 친쳑
아ᄂᆞ라도 강잉ᄒᆞ여 친ᄒᆞ더니 일됴의 ᄯᆞᆯ이 죽고 황금이
다ᄒᆞ니 친쳑이 도로혀 노상 행인이라 갓더라 두어라 셰
생인ᄉᆞ 날마다 번ᄒᆞ니 그를 슬허ᄒᆞ노라

○셰ᄉᆞ을 니아니ᄯᅡ 쇠ᄉᆞ번을 ᄒᆞ고 가리라 셰상이 나ᄅᆞᆯ ᄉᆞ은
둘산 속 즈즌 나ᄂᆞᆯ 셔은 우롸 강호의 일산 어부되야 한놀
셰월 기ᄃᆞ리 ᄒᆞ노라

○임텬을 ᄒᆞᆼ상 삼근 쳑침의 누어시니 송풍은 거문고요
두견셩이 노ᄅᆡ로다 아ᄉᆞ도 ᄂᆞᆷᄉᆞᆫ 한욱ᄇᆞᆫ 나ᄲᅮᆫ인가 ᄒᆞ노라

○방호연 타던 나귀 등에 ᄯᅥ럭이 ᄯᅥ던 쳔 일ᄌᆞ식ᄒᆞᆯ 동연평
ᄒᆞᆫᄌᆞ쳐ᄅᆞ 오록 ᄒᆞᆫ 듯ᄒᆡ 강나 갈ᄂᆞᆫ에 ᄒᆞᆫ 듯 난 ᄉᆞ쇄 쇠우 쳥
인가 ᄒᆞ노라

○ᄎᆞ싱강기지븨여 낙시저두러메고 당을도롸보지아
니ᄒᆞᆯ벽파로나셔가니빅구야날본쳬ᄆᆞᆯ라세상ᄎᆞᆯ남
이알가ᄒᆞ노라

○인의로비를ᄡᅥ도ᄃᆞᆨ을ᄂᆞᆺ다ᄒᆞ니공ᄌᆞᄆᆡᆼᄌᆞ안ᄌᆞ
증ᄌᆞ네셩인ᄌᆞ조셔〻수강에셔여가니양ᄌᆞ지도ᄂᆞᆫ
나도너도들ᄌᆞᄒᆞᄂᆞᆫ도다

●구름이무심탄말ᄉᆞᆷ이아마도허랑ᄒᆞ다즁텬에셔임의
로ᄃᆞᆫ니면셔구타여광명ᄒᆞᆫ일월을더퍼ᄂᆞᆷᄒᆞ리오

○수양산의근수리긔위수변에근ᄉᆡ낙가의젹에비ᄎᆞ
술라쳐빅에ᄆᆞᆫ던달의오술젹오현금가지ᄂᆞᆫ달을구
졍ᄒᆞᆯ기리ᄎᆔᄒᆞ리라

○져긔욱을보ᄒᆡ녹죽이의〻ᄒᆞ도다 유비군ᄌᆞ여낙

치ᄒᆞ나 빌ᄂᆞ니 져 ᄒᆞ나 우리도 삼강셩 팔도 ᄒᆞᆫ낙 가보ᄌᆞ
가ᄌᆞ노라

○산아 산아 수양산아 ᄇᆡᆨ이숙졔 어셔 간고 ᄇᆡᆨ골이 진토
되야 녯 임군 보러 가니 갈졔는 오ᄉᆞᆺ더니 가고 아니 오노
비라

○ᄐᆡ평텬디간의 단표ᄌᆞᄅᆞᆯ 둘너메고 두ᄉᆞᄆᆡ 느르치고 우
즑〃 ᄒᆞᄂᆞᆫ 뜻즌 인셰의 걸닌 일 업ᄉᆞ니 그ᄅᆞᆯ 조하
ᄒᆞ노라

○학 타고 져 부는 아희 너다려 말 물어 보ᄌᆞ 요지년
화긱이 누〃〃 모ᄃᆞᆺ던니 너희 네 낙쥭셩이 오시니게
가 무ᄅᆞᆫ 보셔

○네 집이 어ᄃᆡ미오 이 뫼 너머 긴 강 우희 쥭님 깁

○소상강 기ᄌᆡ 븨여 낙시 지어 두러 메고 공명을 도라보지 아
니ᄒᆞ고 벽파로 나려가니 ᄇᆡᆨ구야 날 본 체 마라 세상 ᄉᆞ람
이 알가 ᄒᆞ노라

○인의로 ᄇᆡ를 무어 도덕을 돗출 다라 공ᄌᆞ 맹ᄌᆞ 안ᄌᆞ
증ᄌᆞ네 셩인 ᄌᆞ셔ᄂᆞᆫ 수강에 ᄯᅴ여 가니 양ᄲᅮᆨ지도는
나도 너도 둥둥 ᄒᆞᄂᆞᆫ 노라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ᄒᆞ다 즁텬에셔 임의
로 ᄃᆞᆫ이면셔 구ᄐᆞ여 광명ᄒᆞᆫ 일월을 더퍼 무ᄉᆞᆷ ᄒᆞ리오

○수양산의 고ᄉᆞ리 고 위수변에 고셔 낙가의 젹에 비ᄎᆞᆫ
슐라 쳐 벽에 무던 ᄃᆞᆯ의 오ᄉᆞᆫ 젹 오현금과 ᄉᆡ ᄃᆞᆯ을 구
경ᄒᆞᆫ 기리 ᄎᆔᄒᆞ리라

○져긔 욱봉을 보여 부ᄌᆞ이의 ᄒᆞ호ᄂᆞ나 유비군ᄌᆞ여 낙

졔ᄒᆞ나 빌녀운다 우리도 삼강 쳥 팔도 복낙 가볼소
가ᄒᆞ노라

○산아 삯아 수양산아 빅이숙졔 어서 가고 빅골이 진토
되야 옛 임군 보러 가니 갈졔는 오ᄉᆞᄃᆡ 가는 아니 오노
비라

○치평연ᄃᆡ 간의 달 못ᄃᆞᆯ ᄃᆞᆯ너메 두스면 ᄂᆞ로 치ᄂᆞ오
즑〻 ᄒᆞᆫ 남 ᄉᆞᆺ준인 세의 걸친 일 업ᄉᆞ니 그ᄅᆞᆯ 즐ᄒᆞ
ᄒᆞ노라

○학 타고 져 부는 아희 너다려 말 물어보즛 오지년
화긱이 누〻 모엿던니 너의에 남죽셩이 오시니게
가 무ᄅᆞᆫ소셔

○네 집이 어ᄃᆡ며오 이 뫼 너머 긴 강 우희 쥭임 집

혼ᄌᆞ의 외ᄉᆞ립다ᄒᆞ니 셰ᄒᆞ로 청풍명월이 오락
가락ᄒᆞᄂᆞ이라

○ᄆᆞᆫ경창파에 한ᄂᆞᆯ어저 ᄂᆞᆯ개치던 어ᄒᆞ훌훌ᄂᆞᆯ
구나버들노회가일너라 석이와셔 나다셔 홍상이ᄅᆞ
을ᄭᅩᆺ우ᄂᆞ 울ᄂᆞ화ᄃᆞᆯ혼비 울ᄀᆞ라치라 십년
ᄅᆞᆯ 강호의 누어시니 철가는 쥴 몰ᄂᆡ라

○ᄆᆞᆯ업ᄉᆞᆫ 청산이오 ᄐᆡ도업ᄉᆞᆫ 녹ᄉᆞ로다 갑업ᄉᆞᆫ 청
풍과 임ᄌᆞ업ᄉᆞᆫ 명월이라 이즁에 병업ᄉᆞᆫ ᄂᆡ 몸
이 분별업시 늙으리라

○청산에 눈녹인 ᄇᆞ람 건듯불고 간ᄃᆡ 업다 저근덧비
려다가 불니고져 머리우희 귀밋ᄐᆡ 묵은셔리 녹여
볼ᄭᆞ ᄒᆞ노라

○추강에 달이 밝거늘 일엽션 흘니저어 낙서을
섯쳐드니 츰든 ᄇᆡᆨ구 놀나거라 저희도 ᄉᆞ람에 흥
을 알어 오락가락 ᄒᆞ는구나

●평ᄉᆞ에 기러기 셔러치는 강촌에 날이 저물도다 고기ᄇᆡ
는 도라들고 ᄇᆡᆨ구는 잠든 젹에 어치셔 일셩어젹
이 취ᄒᆞᆫ 나를 셔오는다

○이런들 엇더ᄒᆞ며 져런들 엇더ᄒᆞ리 ᄆᆞᆫ수산 드렁츩
이 얽어진들 엇더ᄒᆞ리 우리도 이ᄀᆞᆺ치 얽어져 ᄇᆡᆨ년
ᄭᆞ지 누리리라

○이런쳔이 ᄲᆞᆯ을 ᄭᆞ쳐 본잔 ᄲᆞᆯ ᄊᆞ니 장부일의
빙세로다 허ᄉᆞ로다 평ᄇᆡᆨ의 붓친 빙셰야 ᄭᆞᆷ

●놀라 ᄌᆞ릐에 창에 가득ᄒᆞᆫ지 부ᄒᆞᆯ아 부지 ᄭᆞ화 신 ᄀᆞᆺ은

ᄉᆞ쳐아닌즉ᄅᆞ를반연이알아시나아쉽고그릐ᄂᆞᆫ쳥에

횡허션ᄂᆞᆫ가

○츅산이셕잉을셔ᄅᆞ강수에잠겨실제일간쥭빗

기ᄅᆞᆯ은ᄉᆞ쳥에실어시니현ᄉᆞᆼ이한샹에여시九돌즐

보시더라

○달에ᄃᆞᆯ엿ᄒᆞ야벽공에걸녀시니만고풍샹에셔ᄅᆡ

졈즉ᄒᆞ다ᄉᆞᆫ지금에희긱을외ᄒᆞ여장ᄇᆡᆼ금준

ᄒᆞ더라

○금노에ᄒᆡᆼ진ᄒᆞᆯ판ᄉᆞ쇄나ᄂᆞ혹어지가셔니ᄉᆞ랑

밧치다가달에나산에올나셔야ᄃᆡᆨ반ᄂᆞ게왓ᄂᆞ니

○사람이ᄒᆞᆨ셩ᄒᆞ여ᄉᆞᆸ어서괴ᄅᆞᆫᄒᆞ니.봉니산제일봉

의ᄂᆞᆫ장용되야잇셔빅쳘이만건곤을쇄ᄒᆞᆯ노

쳥ㄷ호쇠화

○강호의긔약을두고십년을분주ᄒᆞ니그모ᄅᆞᆫ빅
구는더듸온다ᄒᆞ려니와셩은이지즁ᄒᆞ시니갑고갈
려ᄒᆞ노라

○가인이자ᄒᆡᆼᄒᆞ여셤에도아니뵌다ᄒᆞᆯᄯᆡ업시이에ᄂᆞᆫ그덧
에여잇져시ᄅᆡ나ᄭᆞᆯ이셔누ᄀᆞᆺᄂᆡ결ᄭᆡ면의ᄉᆞᆫᄃᆞᆫᄃᆞᆺᄒᆞᆫ
여화

○산졍누비진후에벽쳘봉이셔호ᄉᆡ라도화ᄯᅳᆫ맑은
물은ᄀᆞᆯ이ᄋᆞᆫ낫나츈됴ᄒᆡ봐ᄂᆞᆫ이여셔ᄂᆡ오ᄂᆞᆫ
에가ᄒᆞ노라

○츈풍에ᄉᆡᆼᄒᆞᆫ산에가득ᄒᆞᆫ츄야에ᄯᅳ운치의그ᄅᆞᆷ
호니지화ᄉᆞ시가졍이ᄉᆞ화ᄒᆞ다ᄒᆞᆫ가지ᄭᅩᆺ두어화고이셰ᄒᆞ

솟지때 붉근구름 그름즁와 한날빗치에 어내섯치
잇시리

○청츈소년들아 백발노인 웃지마소 공번된 한날
이넨들니 양절내시랴 우리도 소년행낙이 어제론
듯하여라

○청산속 벽계수야 속이 가믈 자랑마라 창히가 한번
이흘진던 도라오기 어려워니 명월이 만공산 거든 놀
고 굴아 효노라

○꼿노와 져젼수야 관동풍경 엇더터니 명사십니에
해당화 불거잇고 원포에 양양빅구는 비숙에 날하
구려라

○젓노지 붓화하여 져산에 별이져 꾸도다 산길이 험

거든위요나진ᄒᆞ쳐니나원촌에일ᄭᅴ병ᄒᆞ니다
뫼ᄉᆞᆫ가ᄒᆞ노라

○술이지취ᄒᆞ여거ᄂᆞᆺ오다가상산의셔잠ᄌᆞ니뉘날ᄭᆡ오리
텬디가금침이로다광풍이셰우을ᄶᅡ잠든날을서
노라

○만경창파슈로도못다ᄊᆞᆺ실던고한을탁주셰병으로
오날이야ᄭᅡᆺ셔사나쳐빅이이러ᄒᆞᆷ로장취ᄒᆞ고셔지아니ᄒᆞ

○동산에빅화산발ᄒᆞᆫ듸본너ᄂᆞᆫ나뷔더라향내를ᄶᅩᆺ치여
계ᄭᅵ지ᄶᅡ쟉양에숨구ᄂᆞᆫ거믜ᄂᆞᆫ그믈걸고기ᄃᆞ린다

○황산곡너ᄆᆡ드러빅화를ᄭᅥᆨ거쥐고도련명ᄎᆞᄌᆞ러
오륙촌의드러가니갈건의술듯ᄂᆞᆫ소ᄅᆡ셰우셩인가ᄒᆞ
노라

○쥬직이쳥탁을ᄀᆞᆯᄒᆡ랴다나쓰나ᄆᆞ구걸너밀서너잡거니
권ᄒᆞ거니양ᄃᆡ로먹은후에취ᄒᆞ여초당밝은달에누어
신들뉘가시비ᄒᆞ리

○챵오산이ᄭᅳᆫ너지고상수가ᄭᅳᆫ어져야여시셔름이업슨거설
구의봉구룸이가지록ᄉᆡ로왜라밤즁만월츌동령
ᄒᆞ니님본듯ᄒᆞ여라

●셕양에취흥을계워나귀등의실녀시니십니계산이몽
즁의지셔것다어지셔ᄒᆞᆯ시고보ᄂᆞ시ᄉᆡᆨ은날갓ᄎᆞ잔ᄂᆞ나

○어옹화발ᄉᆞ겻다츄월ᄒᆞᆫ공날소ᄯᅢ가졀을이도라오
미육신이녀겻더니빅발에날혼ᄌᆞ잇치고소년ᄯᆞ라
가더라

○엇그졔님이별ᄒᆞ고벽사창의지ᄒᆞ여시니황혼에지

송구채 안준 밧송고ᄅᆡ 도에 ᄂᆞ려 ᄂᆞ재비에 실흘ᄭᅥ 두ᄯᅦ로 ᄲᅢᆼ
상쳥 보시여 두ᄅᆫ ᄋᆡ쇄ᄂᆞᆫ 님의 날거ᄅᆡ 두ᄅᆫ 길흘 쳐블ᄉᆞ ᄒᆞ노라

○상ᄂᆡ 잡아 길들여 ᄲᅢᆼ 상쳥 보시여 두ᄅᆫ 빗ᄭᆞ 서 부ᄂᆞ쳐 ᄃᆡ동산
송쳥의 ᄂᆡᆫ ᄒᆞᆫ ᄎᆞ구 블나지 낙구 옴 버ᄂᆞᆯ에 ᄉᆡ여 ᄂᆞᆯ께 치ᄂᆡ 두ᄅᆫ으
희야 날블 ᄒᆞᆫ 님 오서 거ᄂᆞᆫ 된시여 울ᄒᆞ날 녀라

○이산 ᄂᆞ실 동치여 ᄌᆞ쳐진 밧희 우희 왜 쳘ᄃᆞᆨ은 내 님 ᄀᆞᆺ치시 눈의
덜 미쳐 ᄂᆞᆫ 님에 눈에 ᄯᅳᆯ ᄉᆞ가 눈 붑ᄂᆞᆫ 번 ᄒᆞᄂᆞᆫ 님이 나 되ᄂᆞᆫ 칠ᄂᆞ

○다ᄂᆞ살 ᄐᆞᆨ ᄎᆞᆷ 고치 ᄭᅦᄯᅢ 곤질 ᄲᅧᆼ 드ᄅᆡ 쇼ᄃᆡ 우 기려 ᄉᆞᆨ ᄒᆞ다 어
룰재 ᄆᆞᆨ이에 구기를 동지 동령 셔여 두른 오희야 산 천 나오ᄂᆞ니라

○한벽당 ᄎᆞᄒᆞᆫ 정을 비ᄂᆞᆫ ᄒᆞ울 보니 벅쳑 원봉 다 일쳔 화산을 ᄉᆞ
라 알ᄅᆞᆯ 대은 ᄉᆞ람은 만졍 ᄒᆞᆯ 종낙은 ᄒᆞ 궁 ᄒᆞᆫ 저 호탕ᄒᆞᆫ 풍각
이오 낭자ᄒᆞᆫ 비 반이로다 우희야 잔 가득 부어라 ᄎᆡ 취ᄒᆞ고 가리라

○남훈젼 순임군 거믄고 울히은 쥬의 졀ᄒᆞ옵사 단한 당잡지
강태와 용졔양 진풍우 건곤의 왕풍 위다ᄒᆞ야 청셩이 ᄀᆞᆺ쳐ᄂᆞᆫ
텬둥방 셩인이 나ᄯᅢ시ᄂᆡ 오현금 듯고 남풍노ᄅᆡ ᄒᆞ여 볼사

○어졔 ᄂᆡ 일이야 그릴 줄을 몰낫던가 잇시라 ᄒᆞ더면 가랴마ᄂᆞᆫ 졔 구ᄐᆡ여 보
ᄂᆡ고 그린 ᄂᆡ 졍은 나도 몰나 ᄒᆞ노라

●공산이 젹막ᄒᆞᆫ지 슬피 우ᄂᆞᆫ 져 두견아 촉국 흥망 어졔 오ᄂᆞᆯ 아니
어든 지금에 피나게 우러 남의 이을 ᄭᅳᆫᄂᆞ니

○벽히 갈류 후의 ᄆᆞ래 모혀 셤이 되여 무졍방초ᄂᆞᆫ 히마다 푸를으
되 엇지타 우리 왕손은 도라 오 도라 오지 아니 ᄒᆞᄂᆞ니

○이러ᄒᆞ야 날 ᄉᆡ이 긴 져러ᄒᆞ야 날 ᄉᆡ여라 뵌 ᄉᆡ의 ᄂᆡ 올이 졈쥭 도호
다 ᄡᅳᆫ 년ᄃᆞᆯ의 언ᄯᅢ 이 지ᄅᆞᆼ ᄒᆞ오디 못이 즐가 ᄒᆞ노라

○삼동의 뵈옷 입고 암혈의 눈비 ᄆᆞᆺ자 구름 ᄭᅵᆫ 볏뉘도 ᄶᅬᆫ 젹이 업건

ᄯᅳᆫ셔산에회지단ᄒᆞ니그르ᄉᆞᆯ허ᄒᆞ노라
○ᄇᆡᆨ년을삼만인ᄂᆞᆫ쉬라ᄒᆞ우락ᄒᆞᆫ볼ᄭᅵᄇᆡᆨ년이라ᄒᆞᆫ들어ᄇᆡᆨ년
이반ᄯᅳᆺ이어ᄃᆡᄯᅢ하두어라ᄇᆡᆨ년ᄀᆞᆺ치나취코놀여ᄒᆞ노라
○춘풍의장칙ᄒᆞᆫ상잼ᄂᆞᆫ이ᄒᆞ야항상디을옛ᄂᆞᆫ히구버보니인왕산
셤각산은호거용반셔으북극을괴앗넌저종남산한강수은금
뎌ᄯᅳᆺ상쳔ᄒᆞ니그뒤ᄒᆞᆫ의상이ᄯᅢ쳡세지ᄒᆞᆫ궁이라군슈ᄃᆡ신ᄉᆞ졍
ᄒᆞᆫ예의동방의오지일월이오순지건곤이라우리도청ᄌᆞ의옵
그동ᄂᆡ치졍ᄒᆞ오리라
○남산송ᄇᆡᆨ은울ᄂᆞᆫ챵ᄂᆞᆫ한강슈ᄒᆞᆫ탕ᄂᆞᆫ우리ᄌᆞ상젼하ᄂᆞᆫ이산수
ᄀᆞᆺ치산동ᄌᆞ강ᄂᆞᆫ오ᄉᆞ호을셔든우리보강구에일민되야격양
가ᄒᆞᆯ브르리라
○격춘신ᄋᆡ자ᄃᆞ셔오한ᄉᆞ을ᄯᅢᄎᆞ든나시져빗기들고술ᄋᆞᆫ거ᄂᆞᆫ

ᄯᅳᆫ서산에회지다ᄒᆞ니고ᄅᆞᆺ술허ᄒᆞ노라

○ᄇᆡᆨ년을심만인ᄂᆞᆫ쉬라혼우락총본에ᄇᆡᆨ년이라ᄒᆞᆫ들여ᄇᆡᆨ년
이반닷기여서왜와두어ᄒᆞᄇᆡᆨ년뎐ᄀᆞᆺ치나취고놀여ᄒᆞ노라

○츈풍의장칙ᄒᆞᆫ상잼ᄂᆞᆫ구ᄒᆞ야ᄒᆡᆼ양디을엿〻히구버보니인왕산
삼각산은후려용반ᄒᆞ고북극을괴왓ᄂᆞᆫ지종남산한강수ᄂᆞᆫ금
디ᄭᅩᆺ〻상셜ᄒᆞ니ᄀᆡ원ᄒᆞᆫ의상이만쳔세지ᄉᆞ궁이라군ᄉᆞ덕신ᄉᆞ졍
ᄒᆞ여며의동방의오지일월이요손지건곤이라우리도쳥ᄌᆞ의옵
그동낙치졍ᄒᆞᄋᆞ리라

○남산송ᄇᆡᆨ은울〻창〻한강수호〻탕〻우리주상쳔하ᄂᆞᆫ이산수
ᄀᆞᆺ치산고수장ᄒᆞ〻셔ᄒᆞ옵셔든우리ᄇᆡᆨ성구에일민되야격양
가ᄅᆞᆯ부르리라

○귀춘산엽ᄌᆞᆯ무은한ᄉᆞ을ᄯᅡ자두ᄂᆞᆫ닥시져ᄇᆞᆺ기들은술을ᄂᆡ음

지금ᄊᆞᆼ이라 연풍ᄒᆞ고 국태민안ᄒᆞ여 구추황국단풍절에 인후

로결부쳐ᄒᆞᆫ면 악등림ᄒᆞ여 취ᄒᆞᆫ바 왕ᄒᆞ오션셔 각경군홍호해

강촌ᄉᆞ

어졔 울든 ᄲᅡᆯ어이

오ᄂᆞᆯ이 ᄋᆡ의 ᄒᆞᆯ올 ᄋᆞᆯ은

갈건포의 ᄒᆞᆫ옷 산천은 예빗치오

그원을 ᄎᆞ자가니 ᄒᆞ아ᄉᆞ와 저ᄂᆞᆫ 시ᄒᆞᆫ ᄯᅢ선

드러간 ᄂᆞᆷ쳠 안ᄎᆡ 청풍의 누어서니

집기ᄎᆞᆷ흠 입ᄉᆞᆯ은 ᄒᆞᆫ가지 연ᄉᆡᆨ치 붕우의 불ᄂᆡ야은

ᄲᅡᆯ려도 ᄒᆞᆫ은 아ᄎᆞᆷ의 ᄆᆡ지ᄌᆞ니

산구의 어ᄎᆡ 엿다 고기파ᄂᆞᆫ 쟁ᄉᆞ ᄋᆞ치오

나모희 쉬을ᄉᆞ니 남역 ᄭᅳᆯ 북역 아옷졔

밥줍ᄂᆞᆫ 엇뢰로다 연ᄉᆞ상ᄉᆞᆼ ᄒᆞ엿뢰니

동편의 ᄌᆞ최이 올ᄂᆞ오니
엽셔지셔 잣부시셔
늙은 안희는 순에 기ᄃᆞ리고
태평성ᄃᆡ의
늙가 늙근 병든 후에
세상의 ᄒᆞᆯ일 ᄒᆞᆯ업셔
두어간 초옥으로
산속 간지어 두은
산셔는 ᄒᆞᆼ울 ᄯᅦ의
창외에 지쳐란다
미화는 ᄇᆡ낙ᄒᆞ고
두견화 만발ᄒᆞ온데

취ᄒᆞ여 ᄒᆞ롤 ᄉᆞ니
어린 ᄌᆞ식은 취ᄒᆞᆫ 날 붓드러 ᄒᆞ단
평안ᄒᆞᆫ ᄇᆡᆨ성되야 나셔
청풍명월 다 벗삼아 늙그리라
일산 벽계을
ᄭᅩᆺᄒᆞ여 차쳐 가셔
춘풍이 노로ᄒᆞ여
별ᄒᆞᆫ을 노ᄒᆞ더니
춘풍이 너빗되여
산빗 철구쳐서니
령앵 춘식으로
제혼자 조황ᄒᆞ노라

도화낭비 더지ᄒᆞᆫ듯
비ᄉᆡᆨ초ᄂᆞᆫ 날니듯
동호수양은
ᄇᆡᆨ셜을 흣ᄲᅳ린듯
연ᄌᆞᄂᆞᆫ 갓ᄃᆞᆯ이오
셰우리조차 갓ᄃᆞᆯ 날쳬
강산풍월을
쳐흔ᄌᆞ 임ᄌᆞ되야
십니송챵은
빅구에 집이되여
반셕의 지ᄒᆞ여
낙대에 낙근고기

도화뎐 시너가에
고기조차 식논듯
슈금은 경각ᄒᆞ여
방의호 날회논다
밧가ᄂᆞᆫ 쳐ᄌᆞ화비야
흥이 ᄂᆡ외셤에 낫다
ᄃᆡ연 봉산을
부자ᄌᆞ지 ᄃᆞᆯ너쇄라
녹파창강을
임의로 왕너ᄒᆞᆫ다
은린을 회쳐보고
홍로을 홍ᄌᆞᆺ부어

녹수청산의빅구와벗지되야 세상의날츳즈리업스니
동일구항일포와두지호노샹이라 혼자늙자호노라
흔낫스 하날이내쓸져엽셔 상산풍경보라보며
세상공명다부리고 네호걸유적사호리라
인간부귀절노두고 청나연월지스립을빅운의달두고
물외연하흥을세워 척척홍파의츳나옷옷항원제뇌오리
연창수복시주내고호날수산림진스업다 수국산가과호흥우의일접어선호올시어져
요산요수호는뜻의인의예재호오리라 장장낙지물너내여녹호강산경조호귀
자락홍진이치거벌일강어옹서물타서 운년옥척세노던지야유강천호빗칠다
범범창파이서흥을녹녹세인일흥이타엽 괴귀세런낙소셔어총강노어비길소냐
십니사장누쳐그너벽구비거산이혹라 상쾌완보섬앙길조심철국장손의근적
고화품염경주흔저모강연유비을드더 만옥편봉오며초유사비드리러라

뎌블근와룰보날을보션곳의
슈풀잇셔존의개득ᄒᆞ여쇄라

명쳥이취ᄒᆞᆫ후의
돌버쉬봅ᄒᆞᆫ벼시잔을들어

고리ᄉᆞ쇽지업고
ᄇᆡᆨ화ᄒᆞ고원변ᄒᆞᄂᆞᆫ내흥일다

당나라우나라이련디아닌가
갈련시절밧셩은나샹일다

강호우유쉽이시흥을
구로여ᄒᆞ제쉬기일너

낭성유무비쉬업고
운쟈고산일너업다

가노쇄새로노쇄두어쇄곡도
ᄒᆞᆫ존벗고두존벗고ᄯᅩ다시부어

빈한우ᄂᆞᆫᄒᆞᆫ숀쇄서츠츠나
계수나무달심경불그쇄라

총단조지노쇄ᄒᆞᆯ
풀밧봄비의빠올소나

산에올나소일오ᄅᆞᆯᄒᆞᆯ
물의남ᄒᆞ야시지우쉬ᄂᆞᆫ내일ᄒᆞ자

청풍조흔경네ᄯᅩ기너
어로성이제뇌라일너

등앙생충ᄒᆞᆫ가ᄒᆞᆫ쥐
앙츰의산고소쇄지아쳑ᄆᆡᆨ고

무슴약수가리왓고오려나거나 남구산못보와보나풀곳히이슬맛고
초사조츤샤쳐ᄂᆞᆫ근난간을의지ᄒᆞ야 셕양이빗기ᄂᆞᆫ져녁임깁흔곳쾨
셔숑취더옥셔러다인개울쉐아릐나 날ᄀᆞᆺᄒᆞ니셔스이잇ᄂᆞᆫ슈요비부ᄂᆞᆫ얼오악혜디나와
무궁ᄒᆞᆫ귀시조다흉얀빅년이야 챵성의못불진저원혼이되오리라
운침ᄒᆞᆫ슈가 인가이소쇄커ᄂᆞᆯ 셰스을쓰르치고 홍진쇄개을셰여나셔 정쳐업시부린낢이
산이야구름이야험니ᄊᆞ나두러스니 가지ᄒᆞᆫ층쇄ᄒᆞᆫ층암절벽의
천회벽게와ᄊᆞ쳡운산은 예구분ᄂᆞᆰ은솔이청풍의ᄒᆞᆫ게ᄲᆡ
우줄ᄒᆞᆫ금은ᄉᆡᆼ은구흥ᄂᆞᆰ근봉이 산속간의두러ᄃᆡ니구야낫치ᄲᆞᆯ나
여의뉴을라도ᄂᆞᆫ듯도화를셕거쥐고 네벗진촐ᄲᆞᆺᄂᆞᆫ다형이조도ᄂᆞᆫ
구름속의연ᄒᆞᆫ엿ᄀᆞᆫ묵슈황ᄋᆡᆼ은 구섬ᄎᆞᆫ광을쳐ᄀᆞ의ᄎᆞ랑ᄒᆞ니
청풍본ᄲᆞᆺ엽고죠화의ᄀᆞ고치ᄭᆡ와 희황천정의듯시오ᄂᆞᆫ치업다

부졍세월은불효ᄒᆞᆫ손ᄌᆞ의 본임의드러봄이시벗지녀이시쇠
욕의ᄒᆞᆫ갈ᄂᆡ기ᄂᆞᆫ옥화가ᄒᆡᄒᆞᆫ빈고나 청풍명월을갑ᄒᆞ준ᄒᆞ야ᄯᆞ른
놀라우신ᄒᆞ여가르ᄯᅥ션ᄂᆡ논ᄂᆞᆫ 벗ᄉᆞ랑이른ᄯᆞᆯ이뢰불쳐인이ᄒᆞᆫ
어와출졉고나이거시어드너잇ᄂᆞ 연듀지화ᄒᆞ엿시나석기화쳐ᄒᆞ야
이곳바리산이잇시ᄒᆞ야발셔못온ᄒᆞᆺ 니옷친들ᄯᅥᆺ출ᄒᆞ야이왕을불게ᄒᆞ니
옥화이야션ᄃᆞᆯᄑᆡᄒᆞ야회서져이ᄯᅡ금이ᄒᆞ야 장시ᄂᆞᆫ쳐ᄒᆞ자손흥공산ᄉᆞ보ᄅᆞᆯ
목미여몸제게옴ᄀᆞᆫ이쳐야ᄒᆡ의퍼자 옥가고옥을안혈의여메여
이야출게우ᄒᆞ야이시몸의지ᄒᆞᆫᄒᆞᆫᄯᆡ 빅옥은덥허시니청산은ᄉᆞ벽이오
구름은과최ᄒᆞ라물흘히구어ᄯᅥ고 이희도흑평초ᄒᆞ야이리와ᄒᆞᆫᄉᆞᄒᆞᆷ도
단의의ᄎᆞ지ᄒᆞ고셰종우룡이 역현디지병이로다내비혼처조업서
바회아ᄎᆞ뇌여신들ᄭᅮᆷ신지의야 욕심의술취ᄒᆞ여메다름이젼혀업다
녀등쳔의이출ᄒᆞ야여엽ᄉᆡᆼ인셩ᄅᆞᆯ은 탄양감지랑음을박년ᄯᅢ미더밧은

오화샤지공병을쳐실로크게씻더
홍진화고의불샹치념ᄂᆞ덜며
쳑ᄌᆞ가우물의드러갈가갓도다
셤ᄭᅩᆺ튼이시인생은
치되야낙화근늙쳑의앙금ᄒᆞ야
ᄃᆞ회라리다쳑우나부지영화를
불샹ᄒᆞᆫ쥬불나보ᄂᆞᆫ
오버션어쥔우희ᄃᆞᆺ은
규의울셩각ᄒᆞ며악의악식을
삼간치로며엿시면어시쾌ᄂᆡ화쳐
욕심을일우처ᄃᆞᆫ홍진화로의
불샹ᄒᆞᆫ너ᄂᆞᆫ들며부지로댓ᄃᆞᆫ물 가갓

부지를다시못것구
날ᄂᆞᆫ비등잔치ᄂᆞᆫ것과갓도다
새갓지발어지ᄂᆞᆫ되갓치빠혼지물
구름갓치ᄒᆞᆫ터지ᄂᆞᆫ쥬보거갓은
물로물못지겸혜업다
참쳐에눈어두어
양자겻ᄯᅢ너게ᄂᆞᆫ야부귀빈쳔이
각우현병이좌로의서분이며
시비의걸일ᄒᆞ야고은옷ᄯᅢ난음식
서분의엽신노비쳔댤년
삼쳐이쳔을경인임군라볌러근임존이
어진신하들이노로로정ᄉᆞ미ᄌᆞ

ᄒᆞᆫᄭᅴ거의다츅어어산쳔이만믈ᄒᆞᆫ 어치가의ᄎᆔᄒᆞᆫ혀고다시혀내
산쳔이너믈ᄒᆞᆫ변비금츅수들의 텬디가ᄀᆞ이업다ᄒᆞᆫᄯᅳᆺ이쳐ᄒᆞᄂᆞᆫᄃᆞᆺ
남쳐도벌ᄭᅩᆺ든ᄀᆞ에와옥은지고 인간을셰나와셔새ᄀᆞ신일이라ᄂᆞᆫ
이셔일쳐ᄉᆞᄒᆞ라내ᄋᆞᆷ심ᄭᅡ쟈ᄒᆞ고 이져ᄃᆞᄒᆞᆨ술혀ᄒᆞ보온임의들어왓시
일월에ᄒᆞ옥쇄어금텬디셩미는 이달은어서달ᄂᆞᆫ섯피니봄이오
아ᄉᆞ산ᄎᆔ셔믈녀화이희ᄂᆞᆫ어셔희ᄒᆡ니 닙지니고울일다산중의쳑역업셔
쳘ᄉᆞ산ᄎᆔ믈ᄂᆞ시니ᄋᆞᆼ셰간지갑ᄌᆞᄒᆞ고 이산중의뉘ᄀᆞ알이ᄒᆞᆫ산의나무프르니
취ᄒᆞ쇄지견ᄂᆞᆫ이라온밧미게조ᄎᆞ니 현녹비도시분이오와츈의ᄎᆔ잔ᄒᆞ니
동녁이셔ᄉᆞ뫼화ᄯᅢ의초ᄎᆔᄒᆞ니 ᄯᅢ수의풍졍거ᄂᆞᆯ갈건포의로
일신이안졍이라모쳠의숙쳥ᄒᆞᆫ 동즁을못이긔여쳥셔장삼을심어
술이취ᄒᆞ본길을양공장ᄉᆞᄒᆞᆫ 셕경을도ᄎᆔᄒᆞ니쳔의ᄂᆞᆫ만쳡ᄒᆞᄂᆞᆫ데
임의도라보니쳥산이외로의 현당이가ᄎᆔ왓다ᄀᆞᆷ각ᄋᆞᆺ주의

지ᄂᆞᆷ희결은빗츤셔왕ᄆᆞᄂᆞ지안의 희거든북지ᄯᅡ화꼿르른거시쳥샌이오
삭수병풍을드ᄂᆞᆫ듯프르거든희지ᄯᅩ오 불근거ᄉᆞᆫ낙조로다송은의빗기누어
원산을ᄇᆞ라보니거븐고가친으희 젹송ᄎᆞ오던ᄃᆞ남하션안ᄂᆞ시면
술병을ᄎᆞ고메ᄂᆞᆫ구름속의날ᄎᆞᄂᆞ니 스부와허유로다이ᄯᅢ셔쥐ᄂᆞ와셔
이산중의날ᄎᆞ리ᄂᆡ쥐을두로헤ᄂᆞᆫ 도복을님의ᄒᆞᆫ쳥의동ᄎᆞ업세우ᄂᆞᆫ
앗혈을넘어보니갈건을졋계받ᄂᆞᆫ 잡당이빌거니두셰벗지오ᄂᆞ다
셕양의ᄇᆞ로ᄂᆞᆫ말을ᄆᆡ쳐옵피ᄒᆞᄂᆞᆫ 뎐ᄎᆞ로안ᄎᆞ며갓거ᄂᆞᆫ듯밧기ᄂᆞᆫ듯
총지을손조ᄉᆡ거쳥리을ᄇᆞ르ᄂᆞᆫ치ᄂᆞᆫ 즐거오미과지업다ᄌᆞ상의벗을ᄆᆞᆺᄂᆞ
어이셔도록출셤던ᄀᆞ와ᄌᆞᆼ의송요주을 취토록ᄆᆡ온후의녕칠현금을
일부비의ᄌᆞᆨ북어잡ᄉᆡᄂᆡ편ᄒᆞᆫ거시 고봉의빗기ᄃᆞᆯ의도산수곡을
녁ᄃᆞ히혜취로다인간의셔ᄆᆡ온지ᄉᆞ 지ᄂᆞᆫ어이붉ᄋᆞ던ᄀᆞ홍과월과우ᄒᆞᆫ이
앙흥의와열어거닭흠셕옥진의 주옥쉰흘하참가산중의쇼지길혀

쇠스랄이 찻ᄉᆞᄂᆡ ᄃᆞ황의 여윈 실ᄂᆞ이 ᄒᆞᆫ식 우로 연명ᄒᆞ나 불노ᄎᆞᆯ을 ᄇᆡ엇던가
취ᄉᆞᆯ기예 삼ᄃᆡ 노화 산충의 빌미 엽셔 인근의 쳐셰던 ᄆᆡ화 ᄉᆡᆼ림의 와 갑ᄂᆡ화
ᄲᅡ져 ᄃᆞ서 입ᄂᆞᆫ자 누음이 얼의 엿ᄂᆞᆫ 단이의 월박ᄒᆞᆫ 간ᄉᆞ의 ᄋᆞᆼ청ᄒᆞᆫ 져
칭영 감ᄒᆞᆫ ᄆᆞᆯ의 벽 ᄭᅦ ᄉᆞ쟌ᄒᆞᆫ ᄇᆡ운 감ᄒᆞᆫ ᄆᆞᆺ에 ᄉᆞ작이 ᄉᆞᆯ피옷다
뎐ᄀᆞ디 형ᄒᆞ나 ᄭᅮᆨᄭᅮᆨ 자 ᄯᅮ궁이오 예도 조ᄒᆡ나와 ᄯᅩ 조흔 뒤 잇ᄂᆞᆫ이라
흥진비ᄅᆡᄒᆞ니 실영ᄒᆡ지 ᄋᆞᆺᄋᆞᆺ다 뎐ᄃᆡ 산 깁흔 ᄆᆞᆺ의 셕청ᄉᆞ 초상이오
ᄆᆞᄅᆞᆫ 새 졔일봉의 셔왕모 ᄎᆞ즈보셔 ᄭᅡᆨᄭᅡᆨ ᄋᆞ ᄎᆞᆫ의 쳥엽 시부ᄒᆞᆫ 몸이
쟝승ᄲᅡᆯ어의 거북드ᄅᆞᆫ ᄉᆞ자 ᄉᆞ하 ᄆᆞᆯ산속의 취ᄒᆞ야 누어 ᄉᆞ니 뎐디 가음 잡이라
이보오 ᄉᆞ람들아 지ᄒᆞᄂᆞᆫ 어ᄃᆡ 두고 ᄉᆞᆯᄉᆞᆯ 다니ᄂᆞᆫ다
젼의지ᄒᆞᄉᆞ 이ᄡᆞᆯ ᄉᆞᆷ돌려보고 궁ᄉᆞ젹 ᄇᆞᆰ히ᄂᆞᆫ 길ᄒᆡ ᄃᆡ부ᄒᆞ 너머 널
너희 ᄒᆞᆫ 낫ᄉᆞᆷ 일ᄒᆞᆫ ᄒᆞᆫ 드려시니 너희ᄂᆞᆫ 낙셤 일ᄒᆞᆯ 반ᄋᆞᆯ 달나 ᄂᆞᆫ다
오ᄂᆞᆫ 젹 닷ᄂᆞᆫ 길ᄒᆡ 이졔도 ᄒᆞᆨ ᄇᆞᆰ히ᄂᆞᆫ 더냘 인의ᄒᆞᆫ 길을 ᄉᆡᆼ면ᄒᆞ 오ᄂᆞᆯ울 집을 삼으

이ᄆᆞ음소기드냐빈쳔을나눈주와 쟝ᄎᆞ도오나구당의회모물젹
이ᄆᆞ음여흴ᄉᆞ고쳠의삭길젹의 단표도잇근엽근나물머근물ᄭᅵ시고
풀을베고누어셔도이ᄆᆞ음의어든계시 이ᄆᆞ음ᄲᅡ질ᄉᆞ텬왕ᄆᆞ회로
ᄀᆞ온저줄셔쇄좌텬금ᄆᆞ총으로 이ᄆᆞ음소키더냐진조의부으로
셩ᄀᆡᆨᄒᆞ면그즛거시도명의지초로 지흔거시내야ᄆᆞᆫ득연셩빅벽은
혜계회변혯일을다단실노닷줄션쳥 갑시나혜경와궁경치봉ᄂᆞᆫ
쳬도다 오뢰라 이마음어거ᄂᆞᆫ을 일시도어졉거든졔뇌셔삽셔길고
하ᄂᆞᆯ리다 니라 셔 일 월 갓 ᄎᆞᆯ너니 진날바ᄲᅡᆫᄂᆞᆫ소노쳔의쳐로물너시니
필부의가진셩즐쥐남로도어졉도다 도로혜풀쳐혜 텬다가의ᄯᅴ엿도다
ᄎᆔ회쳐셩각ᄒᆞ면붕우상의안다ᄒᆡᆺ고 이ᄆᆞ음이혀져든들쳐ᄉᆞ엽시되여
텬뎐을보려흔숨ᄀᆞᆫ셩의ᄒᆞ고집불상 연비어약을다주어대해두고
삼강쳥으로도뢰ᄂᆞᆫ고팔조목으로궤궁 일ᄉᆡᆼ일불이다ᄅᆞᆷ집안갓시호련

명ᄌᆞ호연장의거지챵일엇이온 외셜외악이ᄒᆞᄂᆞᆯᄀᆞ치셔셔져ᄂᆞᆫ
듀ᄎᆞ텨국도의괴쳐조ᄎᆞ뎐ᄒᆞ실 사람애쳔이업셔관지못ᄒᆞᆯᄃᆞ시오다
쳔장ᄯᆞ지ᄯᆞᆺ긔ᄀᆞ쳐조ᄎᆞ되엿거ᄂᆞᆯ 허쳥ᄒᆞᆫ이음ᄆᆞ을사람ᄯᆞ라두엇더ᄂᆞᆯ
꿈어시ᄯᅩ노보셔이길을ᄇᆞᆯ노ᄂᆞᆫ 지쳥을직히여셔광경을ᄀᆞ즈소라
부모의게타ᄂᆞᆫ몸을회상치ᄯᆞ솨소라 ᄒᆞᆯ쉬번셜쳐힘씀을삼아소라
하ᄂᆞᆯ께드ᄂᆞᆫ셩을쳔ᄒᆞ지ᄯᆞ솨소라 뎐혁노비ᄂᆞᆫ다토와ᄂᆞ잇거니와
인의려다을뉘와셔ᄯᆞᆯ어더니 일신의완ᄒᆞᆫ덕을남의게빗쳐소라
ᄆᆞ음갓초자셔여힘가졍ᄀᆞ쳐소라 평셩의여텩이ᄌᆞ손의도로ᄒᆞ되라
경쟝귀보ᄂᆞᆫ이ᄡᅡ괴셔잇ᄂᆞᆫ가 네ᄆᆞ음조히ᄒᆞ야효유의거치ᄯᆞᆯ라
너희ᄂᆞᆫ부심일홀지ᄒᆞᆫ줄ᄇᆞᆯ호ᄂᆞᆫ가 당상의올나안자락작을ᄃᆞ뢰소라
네ᄆᆞ음물이되여가최ᄒᆞᆫ을너잇더 풍속이가시되야ᄂᆞᆫ길의벌여잇ᄂᆞᆫ
이물을ᄇᆞᆯ호려든물졀을아라보소라 인심이잔도되여사ᄂᆞᆫ길을ᄭᅳᆫ쳐잇ᄂᆞᆫ

ᄉᆞ상녹배혀시여 ᄉᆞ시를 ᄲᅡ쳐ᄉᆞ라　인심이 홍수라도 구ᄒᆞᆯ의여 쉬엿고
공졍빅배혀시여 잔동ᄒᆞᆯ이어ᄉᆞ라　인심이 죽도라도 오쳥의시여 수니
ᄒᆞ물며 ᄊᆞᆼ근 길을 얼만ᄒᆞ여 단일ᄉᆞᆫ나　빅만장생들을 달리민든 후의
태ᄂᆞ지ᄒᆞᆯ을 한ᄒᆞᆯ ᄀᆞᆺ치 닥가두고　그제야 고쳐 ᄎᆞ쳐 대ᄒᆞᆯ를의 논ᄒᆞ자
중ᄒᆞᆫ ᄒᆞᆫ 군ᄌᆞ는 일노셔 되려이와　이ᄆᆞ음 ᄀᆞ진 후의 ᄌᆞ울 ᄀᆞᆺ치ᄡᅡ라
군ᄌᆞ의 횡신져도 이만ᄀᆞᆺ쳐 못ᄒᆞ리라　이길에 나션 후의 가온직을 일치ᄡᅡ라
동서남북의 의지업슨 딸이로다　요ᄉᆞᆫ이 아시면 ᄉᆞ히을 평거ᄒᆞ여
형용셩취로 보지못ᄒᆞᆯ 중이로다　공명이 아시면 일단을 연ᄒᆞᆯᄉᆞ야
유랑분묘도 어든거시 중이로다　녜브터 이을 ᄀᆞ쳐 지통을 이뭇지니
염낙관민들도 찻난거시 중이로다　정심공부도 어든거시 소ᄌᆞ라
셩인도 이길로시 현ᄌᆞ도 이길이라　득문공업은 후의 ᄒᆞᆫ도을 뉘면ᄒᆞᆯ고
셩인다현ᄌᆞ들이 이길ᄲᅡ고 ᄯᅩ잇ᄂᆞᆫ가　텬디현황 우주간의 알이 업시 보려스니

아ᄎᆞ셩간졔불일의평양은경수ᄒᆞᆫ듸 십왕뎐도려가니 지장보살두봉이오
ᄯᅩᄒᆞᄂᆞᆫ은정욕ᄒᆞ다추낙올미앙보와 죄ᄒᆞ보쳐조러ᄒᆞ셔신봄은십왕이안ᄌᆞᄂᆞᆫ
황텬각억경ᄎᆞ은십왕젼의드러갈졔 잡죄논이지옥이오젼ᄒᆞᄂᆞᆫ이극낙일세
우두봉마면봉은지옥문의갈나쳐ᄃᆞ 지옥가리뎐쳐ᄯᅩ고극낙가리안쳐의
명산올편답ᄒᆞ야자연이비창ᄒᆞᆫ즉 이런ᄯᅢ올ᄒᆞ거든금강산올쳔션ᄒᆞ소
어와군ᄌᆞ님네산수올구경ᄒᆞᆯ진ᄃᆡ 인ᄉᆡᆼ고히ᄒᆞᆯ셔루나셰왕낙올보리ᄒᆞᆫ다
ᄎᆞᆫ일봉ᄎᆞᆺ뎌올너영원동드러가니 셜ᄂᆞᆨ상승시암은벽쳔의걸녀잇고
영원암일조당은벽운암발ᄒᆞᆫ심근 읍풀ᄉᆞ망고ᄃᆡ는혈ᄆᆡᆫ봉올ᄯᅥᆯ치고
망고ᄃᆡ네ᄒᆞᆫᄉᆞ실쳐뎌도ᄒᆞᆫ졀모ᄒᆞᆫᄂᆞᆫ 긔둥ᄒᆞᆫ최승봉은반공의버쳐셧고
변샹도욕병ᄒᆞ다이션지ᄯᅩ잇ᄂᆞᆫ가 벽화암샹불보희안화와버려ᄂᆞᆫ듸
보혼ᄉᆞ도려가니실임ᄌᆞ그늘암은 졍양ᄉᆞ헐셩누의쳑양올세다희네
긔관동의ᄯᅩ잇ᄂᆞᆫ가쳔일ᄃᆡ잠근보고 일ᄯᅢ이쳔봉올ᄎᆞ셔이부희ᄒᆞᄂᆞᆺ

산수도 조커니와 계수는 잔ᄂᆞᆫᄒᆞᄂᆞ니 최승할손 이분이라 산중도 조커이와
미운초 ᄎᆞ셔도ᄂᆞᆫ듯 셰상의 ᄯᅩ인ᄂᆞᆫ가 불가아라 욕초ᄒᆞᄂᆞᆫ듯 양심앗지 심얘경심 업ᄂᆞᆫ
적막ᄒᆞᆫ 설견쳐와 원등소을 보쳔ᄒᆞ새 그 암희와 용소을 수삼ᄃᆞᆫ고 ᄒᆞ회ᄒᆞᄂᆞᆫ
ᄯᅩ나어 술거경ᄒᆞᆫ 술고소저 봉을 ᄎᆞᄌᆞ가니 ᄯᅡ너셔 너ᄆᆡ들어 경순방극 결터을
ᄌᆞ셔이 도라보니 안ᄉᆞᆼ도 낙수ᄒᆞᆫ다 낙수경을 친견ᄒᆞᆫ ᄯᅩ 폭포을 드러ᄉᆞ니
감부지 왕피방취와 왕계파확비 ᄌᆞᆼᄒᆞᆫ 봉시풍악 셔팔ᄌᆞ는 양ᄉᆞ언의 친필이라
쳔ᄒᆞᆫ즉시 용암은 천승상의 자ᄒᆞᆫ 일ᄉᆞ ᄯᅩ 폭동 진주담은 회용담의 자ᄒᆞᆫ논디
쳥용담 혹농담은 구룡소의 어이일ᄉᆞᆯ 반석ᄋᆞ놀 부실식 폭포수을 ᄂᆞᆯ너시니
진듀을 헷쳐ᄂᆞᆫ듯 부운을 ᄂᆡ쏘ᄂᆞᆫ닷 금수ᄂᆞᆫ 어이얼고 ᄎᆞ리을 보ᄅᆞᄂᆞᆫ듯
계셩은 낙ᄒᆞᄂᆞᆫ지 산조ᄂᆞᆫ ᄎᆞᆺ슬피 운다 셔생이 어듸ᄆᆡ요 국낙이 여긔로다
ᄯᅡᆼ겹지은 회을 ᄯᅦ 두번 쓴 후에 ᄶᅵ심단음 완년ᄒᆞ주 ᄌᆞ셔이 궁구ᄒᆞ니
보덕굴 ᄀᆞ리여울나 진단음 보와ᄒᆞ니 괴이ᄒᆞ고 절묘ᄒᆞ다 천ᄯᅡᆫ길 절벽상의

창희에다 흔셰타 만경려붓나 안져 창천에 리야 잇근홍녀 항상 눕봉을
비로봉을 불퇴로다 셰가봉 미록봉은 츤톄로 홈타 봉너 션경이여러 삐로
불국이 녀긔로다 유졈슬을 바비려 오탁졍이 더욱조타 너법당 산형누의
오십삼불 친견흔근 홍셜을 도타붓너 비흘러 엽거의라 십늑혁형 셩탑은
인공조각 흔사리 득흔다 계슈당은 오십삼불 모셔잇다 한탈분 천단분은
비상의 쏘인는가 근셩을 슈고홀새는 범종각의 다흔잇다 희장연산년 보졀은
좌우의 지혀잇다 보타흔근 미안보타 동희바다 구버보니 셩분동섭니 목도보
쏘결쳐로가 즈셰타 셩불께울나셔、 게타셔 쏘불노타 흡희청학 더는
반근의다 하앗 청학은 어의가근 청풍이 슈흔다 오음러 나래가니
탁즈만나 므는근 플월더 드러가니 옹이ᄂ울 불퇴로다 막달로치 게윽울나
오임흘 드러갈어 셜흘은의、흔러 포츳골 골너너여 셕간슈을 먹어보니
오십삼불 안져잇다、、 실믐치견흔그 일시이 쾌락흔여 쳬상근 시섬다 플눈다

원통ᄉᆞ를보신후의 쟝안근ᄉᆞ치밧비올나가나 영산폭포ᄒᆞᆫ들이에셔 더ᄒᆞᆯ손가
어너올나갈ᄯᆡ지젹셕쥭 묘ᄒᆞᆯ실 ᄒᆞ회비부ᄂᆞᆫ 셜봉ᄃᆞᄉᆞ힌젹못ᄒᆞ다
계속더집션봉은 누우희셔마주볼 발연ᄉᆞ를드러가셔 진리ᄂᆞᆯᄎᆞᆺ쟝그ᄒᆞᆫ
폭포암드러가니 려병당이셔리ᄒᆞ다 신계ᄉᆞ를드러가니 셕각은의의ᄒᆞ리
옥뉴슈흘너셰다 구룡소를드러가니 구룡이셜의잇다 신계ᄉᆞ를밧비볼
산흥쟝관내로ᄒᆞ다 팔만길진ᄇᆡᆨ션의 온졍을보신후에 비로봉의올나가니
빅졍이란션ᄒᆞ다 금강산너의봉을 예와셔알이로다 금강산너의봉을
동ᄒᆡ로둘며보니 현단갈지쥭갈를 ᄌᆞ셔ᄒᆞᆫ불션ᄒᆞ의 관동팔경 ᄌᆞ셔ᄒᆞ자
협츅은 숑흥딕온고셩은 삼일포요 강능은 경포ᄃᆡ요 삼쳑은 듁셔루요
간셩은 쳥간졍이오 양은의샹ᄃᆡ요 통쳔은 총셕졍이오 평ᄒᆡᄂᆞᆫ 월숑졍이오
울진은 망양졍이요 ᄯᅩ 경화본연후의 염불동쟝ᄒᆞ니
이보시오 시쥬님네 금강산을 친견ᄒᆞ고 동히로ᄂᆞ려도습ᄒᆡ다 관셔링

뎌월은산동이오자위는동국이라 남북산도의호남집이근처업듯
동쳐양경의두국이어지미오 봉화쉬남화는연계방고셔진동진그늬친근
누도본화는장성의호접이오 오계운물은남가일몽이라
추남화당남화든그뇌헌근형착이상처업ᄂᆞ 송남화운이ᄎᆞ호ᄃᆞᆫ호원이별철거ᄂᆞ
련도왕쳥ᄒᆞᆫᄉᆞ곤운송도화운니 운순의긔상이운우당의덕칙이라
황하수ᄅᆞᆯ시닭고청인이나시도다 일흠잇든장수와시리신ᄒᆞᆫ사ᄌᆞ금모이듯
영웅호걸은개수산의안개ᄀᆞᆺ치늣 소회조집을삼는지평산을일희시니
산하을통일ᄒᆞᆫ남경의도읍ᄒᆞ야 국호은지방이오건원은홍무ᄅᆞ다
시화비풍ᄒᆞᆫᄃᆞᆫ국치ᄂᆞᆫ안이라 쳥조산ᄂᆞᆫ이게ᄒᆞᆼᄒᆞᆫ니
쳔지일월이ᄯᅩ옥축강곤이라 쉴년디후련디의여만세지유경이라
문룡산일기떡이도셜이셈계ᄉᆞ니 두만강이쳥쳔이오압록강이박ᄒᆞᆫ호ᄅᆞ
빅두산이주산이오한나산이남손이라 진문이지벽ᄒᆞᆫ서별ᄀᆡ울니여ᄉᆞ니

다셔도다거니와 풍경이그지업다
녜악본물은 조홍화되야셔라
함경도 셔왕산은 두만강이둘너잇고
강원도 금강산은 양즈강이둘너잇고
충청도 속리산은 백마강이둘너잇고
전라도 월출손은 유구강이둘너잇고
삼도선치국 셔의 임금그뇌시고
도당씨시절의는 단군의도쳔이요
조한이셧실제는 위만의도셩이요
고구려백제국은 스적만남아잇고
현종이삿지잇고 회용이정이만ᄃᆞ
명세신군이 왕긔을드나시니

팔도산쳔을 역역히ᄒᆡ여보니
평안도 묘향손은 치쳔강이둘너잇고
황해도 구월손은 셔흥강이둘너잇고
경긔도 삼각산은 임진강이둘너잇고
경상도 태백손은 낙동강이둘너잇고
우주에비기셔도 상고적 싱각ᄒᆞ니
부왕이걸주임군 친흥는긔즈의도셩이요
변지ᅵ삼한나라 난송망이즈최업다
일쳔년 신나국은 생한ᄆᆡ 셋쳐잇고
오백년 고려국은 정ᄀᆡ만남우잇고
오채봉 안이오일 ᄀᆡ참 ᄉᆞ쳡이라
국호는됴션이오 한양의도읍ᄒᆞ시니

인왕ᄉᆞ이두ᄉᆞ이오 종남산이안산이라 한강이조수되고 종ᄌᆡᆨ이수구되야

왕십니쳥룡이오 만니재백호로다 산을입고물을셔ᄒᆞ니 텬부와금셩이라

쳔이방자의가자ᄂᆞᆫ ᄉᆞᆺ치되야 오지일월이오 손지건곤이라

금지옥엽의 만ᄃᆡ희장봄빗치라 경인을낸ᄉᆞ슈로비니 만세기ᄃᆡ셰무강이라

장안박만집의 쳔알빌복지방의 열ᄅᆞᆯ운관옥상ᄂᆞᆫ 룡천누ᄂᆞ목지라

괴남ᄌᆞ나ᄂᆞᆫ빌고 아희상을보니 당셰이물이 누의날ᄃᆞ나셧슈

ᄒᆞᆫ살의거름ᄒᆞ니 거름마다보ᄇᆡ로다 셰살에즐비옹ᄒᆞ니 사랑의총명이오

두살의빌을ᄒᆞ니 ᄉᆞ진의구변이오 네살의인ᄉᆞᄒᆞ니 효ᄌᆡ와충신이라

엿ᄉᆞ슈합ᄒᆞ니 쳔습ᄃᆡ셧살비와서근 ᄉᆞ셔오경박가셔ᄅᆞᆯ 일곱살박남ᄒᆞ니

춘추전국통ᄉᆞ긔을 여섯살의와서근 치경도ᄒᆞ셔니와 ᄃᆡ올인들알아ᄒᆞ랴

쳔집ᄒᆞ집이여 나박두시당유풍월 쟈ᄀᆞ이슈독ᄒᆞᆫ 권ᄀᆞ아비ᄲᅡ셔시니

이ᄉᆞ경문진보ᄯᅩ셔ᄂᆞᆫ화셩을 엣날ᄉᆞ젹을ᄒᆞᆷᄭᅦ궁의ᄭᅩᆺ관ᄒᆞᆫ

흑근포위씨포쳡ᄉᆞ셔ᄉᆞᆼᄒᆞ야경긔도ᄉᆞ 셔장을ᄒᆞᄉᆞ복령ᄉᆞ갈ᄒᆞᆫ납응고포로ᄂᆞ

문현각처교졸각장에쌘파결ᄒᆞ라 동지령ᄉᆞ셔장관다팔도어ᄉᆞ담뎡으로근

동부승지강상ᄒᆞ야우부승디좌부승지 나도참의부졔ᄒᆞ야비국ᄇᆞᆫᄉᆞ당상이라

우승지대좌승지대제ᄉᆞ가ᄒᆞᄉᆞ현이라 셔직도ᄒᆞ셰니와외직인즉ᄲᅡ여날ᄂᆞ

비쳔으로의주부윤디정슈수동ᄂᆡ부ᄉᆞ 방백을부쇠ᄒᆞ야셔신의믈망으로

장쳔으로광주부윤수원부윤슈ᄃᆞ쉬와 뢰쳔ᄒᆞ야뎐나감ᄉᆞ이직ᄒᆞ여츙청감ᄉᆞ

불망으로경상감ᄉᆞ이비ᄒᆞ야황희감ᄉᆞ 쳔지ᄒᆞ야경긔감ᄉᆞ승품으로평안감ᄉᆞ

쳔ᄇᆡᆨ으로강원감ᄉᆞ제ᄉᆞᄒᆞ야함경감ᄉᆞ 팔도방백즁지셩ᄎᆡ퇴로울부라더니

이움이실지염ᄉᆞ냐공명의본ᄉᆞᄒᆞᄂᆞᆫ 병조참판가셜ᄒᆞᆫ즁ᄉᆞᆫ졔ᄒᆞᄂᆞᆫ져ᄉᆞ셩의

청운을못다입어경븜을ᄃᆞ라온이 너도참판부총관동돈령지의금

호조참판동지부ᄉᆞ츈헌ᄒᆞ여동지ᄉᆞ성균 호조판셔혜국당상병조판셔셰국졔조

한셩판윤도총관너도판셔슈어ᄉᆞ라 예조판셔겸비활증도판셔총주지ᄉᆞ

츙의우를을ᄒᆞᆫ빅양을쳥ᄌᆞ샹ᄉᆞ 호록이ᄌᆞ진ᄃᆞᆺ의뼈굴이진토되니
혈관을갑피랴ᄂᆞᆫ병ᄉᆞᆯ을잠은후에 황현이젹막ᄒᆞᆫ뎌어서벗지ᄒᆞᄂᆞᆫ울외
추풍이ᄌᆞ슬ᄒᆞᆫ데오작이거ᄌᆞ리ᄂᆞᆫ 츈풍박오졀의ᄌᆞ손이뎌지ᄂᆞᆫ고늘
봄샛츤내ᄡᆞᄒᆞᆫ져두견이슬피운다 영혼이조회업셔오ᄂᆞᆫ줄ᄂᆞᆫ몰ᄂᆞ라든
향화일ᄂᆡ주를ᄲᆡᆨ논줄그뉘알니 쥬뎌ᄉᆞᆼ놈형이고죽은후최ᄉᆡᆼ이업ᄂᆞ
어와허ᄉᆞ로다죽은후허ᄉᆞ로다 술잘ᄆᆡ드니라빅도죽은후그혼이라
ᄡᆞ스을영결ᄒᆞ니세상이허ᄉᆞ로다 외동의황금도길의진이로다
쳑종의부귀도죽은후ᄉᆞ주름이오 쟈근몸이뎌ᄂᆞᆯ고앙나ᄒᆞ편ᄒᆞᆫ다
우산의져난히ᄂᆞᆫ뎨경공이눈물지어 불노초ᄆᆡᆨ은후면션계로가련마ᄂᆞᆫ
옹ᄂᆞᆫ곰ᄒᆞᆫ곡조의뭉상군에우ᄅᆞᆫ말고 북괴을보ᄅᆞ봐ᄂᆡ청천구ᄇᆡ나오
봉시산을보라보니약슈가삼쳔니라 왼단우여동빈은놀더혀물로불ᄂᆞ나
안기성젹송ᄌᆞᄂᆞᆫ어ᄃᆡ로가잇ᄉᆞ며 진시황한무뎨도불ᄉᆞ약을못어더셔

여산부즁산의와 황뎨무덤 뭇쳐잇슈니 허물며 실니셔 셩인 사일너 낫슴ᄒᆞ리
ᄯᅩᆼ승위념을로 쥭기을 ᄇᆡ치노라는 잉노 북황화시의 ᄅᆡᆨ쥬이ᄉᆞ 되오리라
녕랑가 텬다가 놀고 (별) 크되 금을 쳔탄ᄒᆞᆫ낸 으스을 계여 봄니
일신이 부귀가 어렵드라 궁명안즁은 인의을 우쳐ᄒᆞ고
효뎨와 츙신을 일을ᄯᅢ의 스ᄉᆞᆫ더니 효ᄯᅢᆫ을 (옷) 셤쳐입고 활살을 둘너ᄎᆞ고
ᄇᆡᆨ스을 주후릐치고 ᄯᅡ이 젹비와 너야 ᄒᆞᆫ즈칼 사여들고 젹디의 줄입ᄒᆞ니
남편 오환과 북녁 오환과을 ᄒᆞᆫ잘노 쥭이고 산수풍경을 ᄉᆞᆺ져ᄒᆞ 일우리라
궁을 일워 몸이 물너와 임천동화와 명당의 집을 짓고 단뎐을 일운 후에
음지에 우물 푸고 양지의 ᄯᅡᆼ을 갈고 길압히는 울 푸고 길우희 ᄯᅡ을 살고
동편의 ᄯᅡᆨ 짓고 셔편의 고간 짓고 진ᄯᅡᆺ희 피심우고 져ᄯᅡᆺ희 면화 갈고
두텨쳐 솟발 놋코 주수ᄒᆞ며 쳥디공랑 젹이ᄒᆞ소이ᄒᆞ고 ᄒᆞ로 놋고
챵셔둘너 동부파 쳥당ᄭᅡ 오쇄ᄒᆞᆫ 랑호ᄯᅢ에 ᄒᆞ곤 ᄒᆞᆫ듬 이삼운ᄒᆞ세

일신이흠ᄒᆞ여ᄯᅩᄉᆞ가여의ᄒᆞᆷ 벼ᄇᆡᆫᄒᆞᆯ에ᄂᆞᆫ게ᄒᆞᄂᆞ니여ᄂᆞᆫ다
재ᄒᆞ믈근몰의ᄡᅡᆫᄒᆞᆺ셔서진다 구십월단풍절의완곤ᄒᆞ수ᄃᆞ다ᄒᆞᄂᆞᆫ의
오쇄ᄒᆞ술을ᄲᅡ고청앵씨셔을치고 원근서ᄒᆞ필책을보도다청ᄒᆞᄂᆞᆫᄯᅩ에
세잡고ᄎᆔ잡ᄂᆞᆫ어우러져용치잡ᄂᆞᆫ 총경에잣최셜고사ᄒᆞ로안져잇서
격양가부르ᄂᆞᆫ조은놈ᄒᆞᆷ을ᄎᆔ고 ᄒᆞᆫ잔먹고두잔먹고셕ᄌᆞ리ᄉᆞᆫ먹고
걸ᄒᆞᆫ태평잡거니권ᄒᆞ거니 오ᄂᆞᆯ온ᄎᆔ회ᄒᆞᄂᆞᆫ니일은편ᄒᆞ쇠
어화농부ᄒᆞᆫ씨ᄂᆞᆫ 챵ᄉᆡᆼ이ᄉᆡᆼ용ᄒᆞ야세상이변ᄒᆡ시나
쳐ᄉᆡᆼ인고로ᄂᆞᆼ과

낙빈가

부귀를하직ᄒᆞᄂᆞᆫ빈쳔을낙을삼으
일간초옥을ᄂᆞᆫ숨은에지어두고 십년일관을ᄉᆞ거나또ᄉᆞ거다
삼순구식을먹우나못먹우나 시름이업서ᄂᆞ니분별인ᄃᆞᆯ잇슬소냐
ᄯᅩᄉᆞᆯ드닷ᄂᆞ니일신이흠ᄒᆞᆫ고ᄂᆞᆫ 호즁텬디의세상이거의로다
송나무졍ᄌᆞ아ᄎᆡ혼ᄌᆞ안ᄌᆞ보와보니 일흥을모이긔여ᄒᆞ게ᄆᆡᆯ을ᄭᅡᆸ하쟈근

거구세한낙가서여송강보며비길ᄒᆞ니 일낙청강져문날에ᄇᆡᆨ구포졈ᄒᆞ라ᄒᆞ니
경기무릉조흔골실근산수초목풍경속 남북근촌ᄂᆞ셰집은낙하난년츰거셰라
기산영수이안인가별유건곤여긔로다 주옹힉충낙더친ᄀᆞ운산옥혀셰난셰
도연명오류시문텬ᄀᆞ현ᄉᆞ셰지ᄂᆞ려젹은 풀ᄂᆞ취나무피외벗즐슴우ᄲᅡ화ᄀᆞ이보나보라
안즌슈화킈결심ᄇᆞᆨ근기낙ᄀᆞ져역ᄇᆞᆨ근 상이감ᄇᆞᆨ시츨기니보라공병불을ᄒᆞ니
오곤남ᄒᆞ야옥불불근관욱는니일ᄒᆞ셰 술두세병을ᄒᆞᆫ잔ᄃᆞᆫ다시보어라
져변청잠도벼고소나무아쉬잠ᄃᆞᆫ갈둘어 초국서술피우나취흥ᄒᆞ스도ᄂᆞᆫ놀져
두어곡도산부취비다듯낙일빌ᄀᆞ잇ᄂᆞᆫ ᄯᅡᆨ대더지근옷길버셔인갈ᄲᅡᆺ스ᄀᆞ셜
원학이흑벗지피야ᄲᅡ수현산오며ᄀᆞ며 충연연지싱각ᄒᆞ여옥을춧ᄎᆞ리라
셰상부중진셰소식셔쳐시니 우리도셰상의버셔나셰
강산수월라
춘면숙이라
흠쇠희즈ᄒᆞ노라 춘면을느즛셔야독창의ᄲᅡᆫ지ᄒᆞ여 (시ᄅᆞᆯ)
서ᄅᆞᆯ지ᄌᆞᆺ잭고ᄒᆞ야ᄀᆞᆫ나뵈니무ᄉᆞᆫ고ᄉᆞᆺ

버들은 의의ᄒᆞ야 청긔시올 뎌여셔라 창ᄶᅡ리 ᄂᆞᆯ리올 ᄒᆞᆯ 두셔잘 ᄲᅥ은흐
호탕ᄒᆞᆫ ᄭᅩᆺ친흥을 브졀업시 자우시야 뫼ᄭᅳᆷ뎐우ᄒᆞ야 유원을 ᄯᅩ자ᄉᆞ니
ᄉᆞ향긔는 ᄭᅩᆺ이져근 월색이 ᄯᅢ 졍ᄒᆞᆫ지 미회원변ᄒᆞᆫ 유졍이 셔ᄂᆞ화니
광ᄒᆡ 안ᄃᆞᆫ 취ᄒᆞᆫ 아ᄒᆡ 흥을 겨워 브므ᄂᆞᆫ ᄃᆞᆺ 난갑ᄒᆞᆫ 누의ᄒᆞᆫ 낙의 홍상 이ᄉᆞᆯ 말ᄂᆞᆫ
옥양을 잡은 ᄃᆞᆯ 뎌 ᄉᆞ창을 ᄯᅢ시ᄒᆞᆫ근 츈풍ᄃᆞᆯ 춤추ᄒᆞᆫ근 낙의 금빗기 안져
웃ᄂᆞᆫ ᄃᆞᆺ ᄯᅢ 가ᄂᆞᆫ ᄃᆞᆺ 고ᄒᆡ ᄒᆞ야 부자ᄒᆞᆫ ᄃᆞᆯ 뎌 봄ᄒᆡᄒᆞᆫ 뭇지ᄒᆞᆫ 무로ᄒᆞᆫ ᄒᆞᆫ 흥을 자우시니
구름비양 셰상의 ᄎᆞᆷ화가ᄀᆞᆯ이 ᄯᅡ 청뎌ᄃᆞᆫ 이사랑이 연분을 비ᄒᆞᆯ쇠 젼혀 업시
사 광오즈지 업ᄂᆞᆫ 연분도 ᄀᆞᆸ흘시고 별ᄂᆞᆫ 죽어 ᄉᆡᆺ치되 ᄂᆞ나는 죽어 너비되야
삼춘이 ᄃᆞ진ᄃᆞ록 ᄲᅧ나 슐치 ᄯᅡ치더니 셰졍이 ᄆᆞ흡ᄒᆞ야 외달을손이 별이야
인간의 일이 ᄯᅢ 그조물조차 ᄉᆡ옴ᄲᅡ나 청강노던 원앙을 어예ᄂᆞ니 난 ᄃᆞᆺ
광풍의 불난 봉접 ᄀᆞ대가 ᄃᆞᆯ치는 ᄃᆞᆺ 내 ᄀᆞᆸ을 비의여 잡고 암연이 여힐 ᄯᅢ에
셕양은 저울 넘고 갈 ᄯᅢ ᄋᆞᆫ 슐 ᄑᆡ올 ᄀᆡ ᄯᅥᆺ친 ᄆᆞᄋᆞᆷ 실ᄒᆞᆫ ᄀᆞᆸ 장님의 손의 보ᄂᆡ쥬근

쿵느등돈두등돈셔베등돈
등돈압희등돈잇슴수엽슴등돈
낙양팔만집〻등돈
집〻이팔팔만등돈
광의소포요남군등돈
쥰철몬병순남군등돈
도될호로희문씨등돈
날라별천ᄌ공돈남〻돈
등돈울로등돈울이등돈잇등젼
등돈약로등돈흘이등돈빠셔등돈
셩인빵득셩인등이라
웃청웃일년삼등돈

쟈근도일홈이는책상등돈
책상등돈뒤에낙양등돈
금양ᄊ출은흔등돈엽도등
낙놀노만〻등돈을셰는도다
보우스희한화한우씨등돈
불현미상운나화탕남조등돈
회도청명무량남등젼
며약어반〻호는족동남등돈
등돈외등돈제구나무소담등돈
등돈빠져등돈크나형인남등돈
금근우축과훗지안는등돈
기뢰우족뫼갈인나광명등쟌